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

정다운(한국학중앙연구원)

본고는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지화와 관련하여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한국학은 한국에 관한 지식 전반을 다루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인문·사회·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기초로 한국 사회와 문화가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고,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국이라는 지역적, 정치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지역학'의 하나로 분류된다.¹⁾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 교육과정에서는 한국학 전공지식의 습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용 지식과 한국어 능력에 대한 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강현화, 2006:101) 또한 취업을 고려하면 현재 해외에서는 전공별로 다양한 교수요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학 전공 졸업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와 한국어 모두 교육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신성철(2020:92)에서도 호주에서의 한국학 현황을 논하면서 대학들이 한국어교육과 한국 관련 지역학 강좌도 교육할 수 있는 졸업생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한국학 전공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학 전공 지식과 더불어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을 전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기에 이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는 한국학 연구를 위해 학술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므로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²⁾

한국학대학원은 한국학과 관련된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연구하고 한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국내외 한국학자 양성을 위해 1980년 3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4개 학부 16개 전공이 있으며 한국학 전문 교육 및 연구 중심 대학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22년 현재 전체 재학생 245명 중 외국인 학생이 113명³⁾으로 46.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학대학원은 2009년부터 대학원 내에 한국문화학당을 운영하여 한국문화학당 한국어 강좌를 기초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한국학대학원에 입학 후에 전공 강좌와 함께 한국어 강좌를 기초과목으로 들으면서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학 연구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키우게 된다. 현재 한국학대학원 한국문화학당에서는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1) 두산백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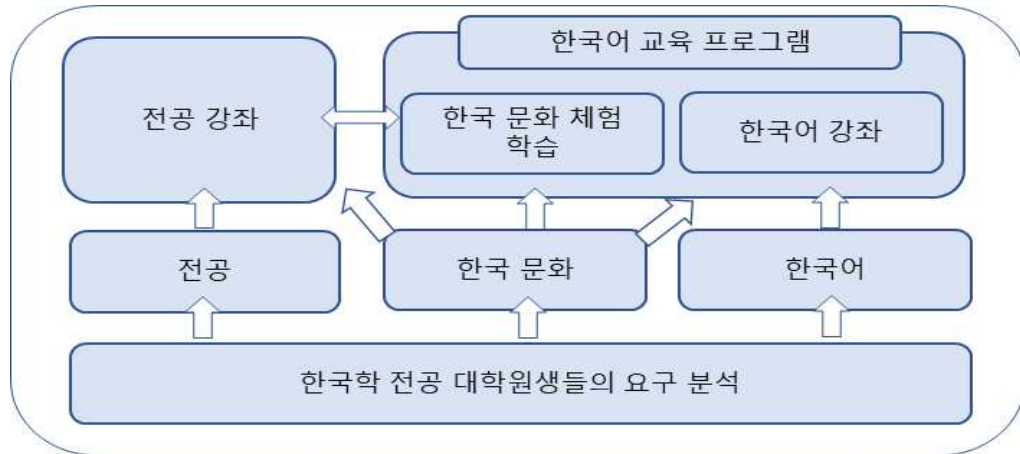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67332

2) 정다운(2011)을 참고하였으나 2022년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함.

3) 대학알리미 참고. <https://www.academyinfo.go.kr/popup/pubinfo1690/list.do?schlId=0000683>

일반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한국학대학원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고급 한국어 읽기, 고급 한국어 듣기, 학술 발표·토론, 한국어 어휘·문법, 학술적 글쓰기(입문), 학술적 글쓰기(심화)의 6개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1) 한국어교육의 목표



한국학대학원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공과 한국어를 동시에 공부해야 하며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통합되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수업만으로는 한국 언어문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유적지 답사, 박물관 견학, 체험 활동, 공연 관람 등 매 학기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한국학을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한국학 전공 강좌를 듣고 관련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며 발표할 수 있으며 연구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킨다.

2) 내용 중심 교수법과 장르 중심 교수법의 활용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통합되는 수업을 위해 한국학대학원에서는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문적인 문식성을 갖추도록 장르 중심 교수법(Genre-based approach)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법은 수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어휘·문법 수업에서는 내용 중심 교수법을 적용하여 역사,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과 같은 주제와 관련하여 텍스트를 읽고 여기에 나온 어휘와 문법을 공부하게 된다. 이때 수업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영상 자료와 추가 텍스트를 통해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관

런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나라의 상황에 대한 쓰기를 하고 1학기에 1-2회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자료를 찾고 수업 시간에 이를 발표하여 친구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함께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에서는 학술적 글의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르 중심 교수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논문의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의 논문 장르를 분석하고 스스로 소논문을 써 보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 논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논문에 사용되는 표현과 어휘를 학습하여 스스로 한국어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3.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지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은 지역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현지의 한국어교육 환경과 교육 관계자들의 요구를 토대로 교육과정과 교수요목이 설계되어야 한다. 즉 한국어교육은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진량(2019:292-293)에서는 해외한국학은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걸맞은 자생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현지화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지화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지역 환경에 맞추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현지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현지의 교육 정책과 환경
- 해외 현지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
- 요구되는 한국학이나 한국어교육 전공 강좌와 교원 수급 문제
- 해외 현지 교육 관계자와 학습자의 요구 사항
- 문화 간 의사소통을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
- 한국과 해외 현지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협업 가능성

현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 현지 정부의 교육 정책과 교육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전공 강좌의 경우 해당 대학원 자체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목표를 벗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김진량(2019:293)에서도 한국학의 현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제도 안에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해외 현지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학이나 한국어교육 전공 강좌가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분야의 교수 요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⁴⁾ 또한 당연히 해외 현지 교육 관계자와 학습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데 해외에서는 상황에 따라 독해 능력과 통번역 기술 향상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을 수 있다.⁵⁾ 그리고 현지 문화를 고려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

4) 교원 수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정희 외(2018), 신성철(2020), 조영미·한혜민(2022)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5) Tomas Horak(2011:111-112)은 대학교에서 실시되는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문과 분야 연구 도구로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조영미·한혜민(2022:192)에서도 대만 내 한국학 전공이 개설된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용할 한국문화 교재 개발은 목표 문화인 한국 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여 한국인들과의 건강한 교류에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윤여탁(2015:6-7)에서도 외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모어 문화와 목표 언어의 문화 간의 상호 관계, 즉 간문화적(inter-cultural) 소통의 차원에서 언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학 차원에서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해외 현지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의 협업의 가능성에 따라 현지화의 정도도 결정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의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교육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해외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해외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참고로 작용하여 현지 상황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통합된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방안으로 내용 중심 교수법과 장르 중심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지화의 과정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좀 더 고려해야 하며 텍스트 읽기와 통역과 번역에 대한 교육 등 현지 상황에 따라 더 강조되는 분야의 교육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란숙(2015),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어 교육 과정 사례로 본 유럽 한국학의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 연구-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6-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35.
- 강현화(2006), 「한국어교육 · 한국학 교육과정 분석 및 발전방향」, 『아태연구』 13-1, 경희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pp73-104.
- 김진량(2019),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성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2-1, 한국학중앙연구원, pp283-307.
- 신성철(2020), 「호주 대학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17-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75-98.
- 윤여탁(2015),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2-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1-22.
- 오지혜(2007), 「한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4-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pp83-120.
- 이정희 외(2018), 「해외 한국어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현황 분석 연구 -해외 대학 기관을 중심으로-」, 『어문학』 142, 한국어문화학회, pp431-472.
- 정다운(2011),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들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42-352.
- 조영미·한혜민(2022), 「대만 한국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연구-한국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22-7, 한중인문학회, pp190-199.
- Tomas Horak(2011), 「체코 내 한국학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연계 -전통 어문학 연구의 필요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8-113.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용 한국어 사용보다 독해 능력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 원문 자료 해독이 필수적이어서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며 해외에서 통역자나 번역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통번역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